

공부하는 의회 '신선'... 총선 후보에 줄 서기 구태 여전

광주시의회 전반기 2년 결산...조례 발의·특위 운영 등 지표 향상 의원 연구모임 횟수 470% 증가... 시민 상시 제보·통합돌봄 등 호평

제9대 광주시의회가 전반기 반환점을 돌면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 '줄서기' 등은 지방의원으로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6월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제9대 의회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후반기 의정 방향을 발표했다. 조선 70%, 20~40대 48%로 구성된 제9대 시의회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조선 의원이 많은 탓에 미숙한 의정 활동에 대한 우려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졌을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했다. 실제 8대 의회 전반기와 비교해 보면 9대 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 26%, 특별위원회 운영 33%, 연구모임 개최 472%, 정책토론회 47%, 성명서 발

표 50%, 청문 대상 공공기관 수 50% 증가 등 양적 지표에서 크게 향상됐다. 또 시민 제보 365일 상시 운영제 도입, 5·18 관련 조례 11개 통합, '통합돌봄 지원조례'로 세계 최고 권위인 광주우 국제도시 혁신상 수상, 전국 최초로 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조선의 열정과 재선의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광주 시정발전 의원연구회', '인공지능, 반도체 의원 연구모임' 등 5개의 의원 연구모임이 결성되고, 의원 연구모임 개

최 횟수도 8대 의회 전반기보다 47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처리한 조례안 485건 중 60%인 289건을 의원 발의로 입안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20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단체 부문 대상, 개인 부문 최우수상·우수상 등 전국 우수조례 평가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도 이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까지 수상하면서, 시의회 안팎에선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대내외로 인정받았다는 호평 등이 이어졌다. 조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응답하라! 5·18 릴레이 5분 발언'은 참신한 의원상을 제시한 대표 사례

로 꼽힌다. 반면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기성 정치인처럼 '줄 서기' 행태 등을 보인 점은 생계기로 남았다.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총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의 일정을 따라다니는 등 지방의원의 줄서기 구태를 보여줬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의회 정책 역량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등 선진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



"방독면 착용법 미리 미리 익혀요"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25일 중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화생방 방독면 착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1인 가구 '삶의 질' 높인다

독거 가정, 센서 활용 119 서비스·청년엔 월세 한시 지원 등

광주시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25일 시청에서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방향과 안심·돌봄·서로 이음 등 3대 이음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안심 이음은 안전하고 자립 가능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관문·창문 개방 알람 장치와 호신용품을 지원하거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을 한다. 돌봄 이음은 1인가구 맞춤형 건강증진 정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센서를 활용해 독거노인 가정과 119 종합상황실을 연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역 '창업스테이션' 내년 3월 개관

시공사 자금난 등으로 중단됐던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건립 공사가 주 시공사를 변경하고, 다음 달 초 재개된다. 광주시는 공동 시공사 간 지분을 조정해 주 시공사를 변경하고 남은 공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역 도시재생을 위한 창업 벨리 조성 사업의 하나로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주 시공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난 3월부터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 공사를 재개

해 11월까지 완공 후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함께 광주역 창업 벨리의 한 축으로 여겨진다. 광주역 수화물 부지 5503㎡에 연면적 8949㎡,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돼 입주·보육 공간, 협업 작업실 등으로 활용된다. 복합 문화 편의시설도 조성해 광주역 일원 유동인구를 늘리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공익직불금 전국 최다 신청

21만2000ha 4600억원...현장점검 후 12월 지급

전남에서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21만2000ha, 4600억원이 신청·접수됐다. 신청 면적은 전남이 전국 면적(110만5000ha)의 19%로 21만2000ha다. 이어 경북 17만8000ha, 충남 16만6000ha, 전북 15만6000ha 순이다. 신청액도 4600억원으로, 경북(3900억원), 충남(3500억원), 전북(3200억원)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원

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됨에 따라,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 8만4000명보다 1만8000명(21.7%)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자격을 검증한다. 신규자, 관외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게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급 대

상 농지·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직불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실경작 확인을 위한 합동 현장 조사를 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베트남 동나이성, 교류 강화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협력...청소년 교류 우선 시행

전남도가 베트남의 남부지역 경제 핵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나이성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베트남을 방문한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동나이성 인민회의 본부에서 응우옌 티호앙 인민부위원장과 전남도-동나이성 교류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4월 29일 동나이성 응우옌 흥링 당시기 일행이 전남도정을 방문하고 상호 교류를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협력과, 문화관광, 청소년 교류 등 양 지역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과제를 협의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지역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청소년 교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베트남 동나이성에는 효성을 비롯해 1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2026년에 준공되는 베트남 최대 통탄 국제공항을 비롯해 수도 호치민시 등 6개 성과 인접해 있어 물류 강점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자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